AUTHOR 주도홍

TITLE 개혁파 경건주의의 근원

IN 월간고신
111호 (12, 1990): 107-111.
112호 (1, 1991): 76-80.
113호 (2, 1991): 56-60.

들이 투옥 당하는 일을 보고도 별 죄책감없이 지내오다가 지금부터 20여년전 일본정부가 야스꾸니신사를 국가예산으로 운영하고 범국민적인 참배를 하도록 결정했을 때에야 그것이 무서운 우상숭배의 죄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결국 그것의 근본은 한국의 식민지 역사 속에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일본교회는 마땅히 사죄해야함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도까 목사는 많은 한국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결정적인 기회는 김응수 목사(안의교회)를 만나면서 부터였다. 또 출옥성도 손명복 목사를 일본으로 초청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도까 목사는 용기를 얻었으며, 1987년 10월 16일 제37회 일본기독교회 대회 때 다음과 같은 건의문을 올리게 된다.

"신사참배문제는 우리나라 기독교회에 있어서 역사에 남는 통한사(痛恨事)이며 또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에 대하여 지은 중대한 배신 행위였으며, 지금도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끄러운 역사를 극복하도록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교회 지도자들이 국가와 더불어 한국교회에 신사참배를 강요했으며, 그 결과로 1938년 한국의 여러 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그 상황 밑에 신앙의 정조를 지키려는 형제자매들이 옥고와 옥사로 몰려나갔던 것입니다. 1946년 한국의 여러 교회는 1938년의 결의를 배신행위로 인정하여 회개하고 철폐를 결의함으로 법적 귀착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회는 그 책임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한 일 없이 대응할만한 법적 처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비정상적인 사태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가 현 일본기독교회로서는 관계사항을 추구하고 나서 가급적 빨리 결론을 얻고 책임질만한 처치를 취하도록 이 문제의 추급 및 연구를 야스꾸니신사문제특별위원들과 시대와 선교에 관한 위원들에게 위탁하는바, 이상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후 그는 자료수집에 들어가는 한편 고신교단과도 접촉을 가지고 조수옥 권사 등 많은 한국 교계의 옛성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하여 이번 총회에서 사과문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게 되었다고 한다.

"지나간 과거의 일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한국교회에 지은 죄를 참회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한국과 일본간에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진정한 평화와 교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까 목사가 신학대학원 채플에서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힘주어하는 말이었다.

특별기고

개혁파 경건주의의 근원

-보에티우스(G. Voetius)와 코케이우스(J. Coccejus)-

네델란드의
청교도적 경건주의는
독일경건주의의
태동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주 도 홍
독일 도르트문트한인
제일교회 담임 목사
독일 보쿰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개혁파
경건주의를 전공하고
있으며
동 대학에서 신학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신앙고백 시대

경건주의에 바로 앞선 시대를 교회사적으로 '신앙고백시대'라고 부른다. 이 시대는 종교개혁(1517)과 경건주의(1670)의 중간 시대이다.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 이후 경건주의까지는 약 150년의 흐름이 있다. 종교개혁은 1555년 '아우그스부르그 종교 화해'의 원칙 "Cuius Regio, Eius Religio" (백성의 종교선택은 성주의 종교선택에 준한다)와 더불어 '고백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이 고백시대에서 '루터교', '칼빈주의' 그리고 상대화된 '로마카톨릭 교회'의 윤곽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특히, 독일 교회에서 약세였던 개혁파교회(Die Reformierten)는 1648년 '베스트팔렌 화해'를 통하여 드디어 자신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밖으로부터는 1560년 경부터 시작된 칼빈의 영향을 받은 영국의 청교도주의가 여기에 가세하였다. 이는 고백시대를 이루는 주인공들이었다. 새로 태동되는 경건주의에 앞선 고백시대는 여러면에서 산모역할을 감당하였다. 고백시대가 가졌던 각성과 문제는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네델란드의 청교도적 경건주의

독일의 경건주의와 구분하여 네델란드에서 꽃핀 제2의 후기 청교도주의를 '청교도적 경건주의'라고 부

르고자 한다. 이는 경건주의의 네델란드적 유형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네델란드 경건주의' (Der Niederlandische Pietismus)라고 일컬어도 내용적으로 볼 때 오류일 수 없다. 네델란드의 청교도적 경건주의는 독일 경건주의의 태동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특히, 개혁파 경건주의가 더욱 그러했다.

네델란드의 청교도적 경건주의는 다음의 두 인물을 통하여 절정에 이르게 된다. 우트레히트 대학교수였던 히스베르트 보에티우스(Gisbert Voetius, 1589－1676)와 독일 브레멘 출신으로서 네델란드의 라이덴 대학교수였던 요한네스 코케이우스(Johannes Coccejus, 1603－1669)가 그 두 인물이다. 그들은 어떤 때는 서로가 다른 입장에 서기도 했지만, 경건주의의 아버지들이었다.

이들보다도 조금 앞선 청교도주의자들인 William Tellinck(1579－1629)와 영국사람으로 William Perkins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수제자였고, 후에 네델란드의 프라네커 대학의 교수로서 코케이우스에게 영향을 준 Willam Amesius(1576－1633)도 중요한 인물들이었다. 또한 우트레히트 대학교수를 역임한 Jodocus van Lodenstein(1620－1677), 그리고 동료로서 함께 일한 Justus van den Bogaart등이 여러면에서 독일 개혁파 경건주의의 창시자 운데아익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로덴스타인은 '제2의 종교개혁'(Nadere Reformatie)을 힘주어 외쳤던 사람이다. 후에(1688) 분리주의적 입장에 섰지만 불란서 사람 라바디(Jean de Labadie, 1610－1674)가 카톨릭(Jesuit)에서 개혁파 교회로 개종(1650)하여 동참하기도 하였다. 라바디의 영향은 슈페너의 루터파 경건주의의 태동과 적지 않은 관계를 갖는다.

독일의 개혁파 경건주의

개혁파 경건주의의 창시자 운데어아익(Theodor Undereyck, 1635－1693)은 보에티우스와 코케이우스의 제자이다. 우트레히트 대학(1654－57)과 라이덴 대학(1658)의 유학을 통하여, 네델란드의 '청교도적 경건주의'에 매료되었다.

당시 신학의 두 어깨였던 보에티우스와 코케이우스가 네델란드의 신학을 움직이고 있었다. 수많은 독일의 개혁파 교회 신학생들은 당시 그들의 신학수업을 받았다. 물론, 당시 독일의 Marburg대학과 새로 설립된 Duisburg대학 등이 개혁파 교회에 속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네델란드교회는 독일 개혁파교회의 신학적 방향을 주도하고 있었다. 특히 네델란드와 접한 독일의 북서부지방이 브레멘을 중심으로 하여 더욱 그러하였다.

보에티우스(1589－1676)의 사상

－보에티우스는 교리적 입장에 있어서, 17세기 네델란드에서 시작되는 청교도적 경건주의 그리고 개혁파 정통에서 양보할 수 없는 중심인물이었다.

처음 목회자로 시작하였던 그는 1634년 우트레히트 대학의 교수로 취임강연을 하게된다. 그의 강연제목은 독특했다. 당시 청중들의 학문적 기대와 다른 주제였기 때문이었다. '학문과 병행하는 경건에 대하여' 여기에서 그는 당시 신학의 제일 큰 문제는 참 경건의 결여라고 보았다. 바른 신학수업의 원동력이란 신학과 더불은 경건의 연습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 취임연설의 주제는 167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신의 생애 과업으로서 변치 아니하였다. 그러기에 늘 신학과 경건의 결합을 위해 혼신을 다했다. 쉬지 않고 '금욕주의적 경건의 신학'을 대학강단에서 외쳤다. 그의 경건은 결코 탈세적이 아니라 세계내적 금욕과 절제에 의한 경건을 강조하였다. 그는 당시 네델란드의 '개혁당'의 당수이기도 했다.

그가 대학강단에 선지 30년이 되던 해(1664), 생의 저서(Lebenswerk)를 출판하게 된다. 그 책의 제목은 다름아닌 '경건연습으로서의 금욕'이었다. 여기에서 그는 이 연습이야말로 신학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당시 바른 삶이 결여된 채 계몽주의적 영향을 받는 새로운 신학에 경종을 주는 것이었다.

－보에티우스는 교리적 입장에 있어서, 17세기 네델란드에서 시작되는 청교도적 경건주의 그리고 개혁파 정통에서 양보할 수 없는 중심인물이었다. 그는 개혁파 정통교회의 교리에서 벗어나는 가장 조그만 부분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물론, 그가 실천신학적 면에서는 신앙고백적 협소성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엄격히 볼 때 그는 자신이 속한 개혁파 교회의 정통에 가장 충실한 한 사람이었다.

특히 그의 정통성은 당시 코케이우스와의 심한 논쟁, 후에는 전 네델란드교회를 떠들석하게 했던 '안식일 논쟁'(Sabbat, 1658)에서 분명해졌다. 그에게 있어서 안식일 계명은 주일성수에서 그대로 지켜져야만 했다. 이는 엄한 청교도적 전통 그대로였다. 그러나 이 안식일 논쟁을 보에티우스는 얻은 것이 없이 끝을 맺어야 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분열이 위험스러웠기 때문이었다.

－그의 전생애는 참된 교회를 위해서, 당시 출현하는 알미니안 신학과 싸워야 했고, 아울러 계몽주의의 데카르트(Descartes, 1596－1650)의 회의와 더불은 철학적 논쟁, 국가로부터의 교회의 독립을 위해 개혁당의 당수로서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특별기고

개혁파 경건주의의 근원 II

주 도 홍

독일 도르트문트한인 제일교회 담임 목사 독일 보쿰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개혁파 경건주의를 전공하고 있으며 동대학에서 신학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나데레 레포르마티'의 뜻

'개혁파 경건주의'가 자신의 뿌리를 찾아 즐거이 나서는 땅은 네델란드이다. 네델란드의 개혁파교회가 자신의 모체가 됨을 알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뿌리 찾기를 하다 보면 인물이 아닌, 그냥 지나갈 수 없는 한 추상명사를 만나게 된다. 곧 '나데레 레포르마티'(Nadere reformatie)이다. 물론 네델란드 말이다. 이 두 단어중 'reformatie'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종교개혁' (Reformation)과 같은 의미이다. 문제는 낯설은 'Nadere'이다. 쉽게는 '제 2의'라는 의미로 의역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제2의 종교개혁'으로 이해된다. 네델란드 교회사가인 Van der Linde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중단 되어진 '종교개혁'의 계속 추진, 그리고 확장"이라고 독일말로 옮겼다.

'종교개혁'과의 관계

'Nadere Reformatie'는 '종교개혁'을 제1의 종교개혁이라고 부른다. 이 말은 무엇보다도 앞선 종교개혁을 전제하며, 그것과 긍정적인 관계속에 있음을 시사한다.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 비판을, 또는 당시의 과격한 우익 재세례파들, 또는 좌익 토마스 뮌쩌 등의 '과격종교개혁' 옹호를 결코 의도하지 않는다. 제 2의 종교개혁인 '나데레 레포르마티'는 앞선 종교개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의 거대한 선물로 받아들였으며, 그 제1의 종교개혁은 분명히 성공적이었음을 확신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점은, 특히 자신들의 개혁파 교회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보았다는 것이다 "진정한 이해없이 개혁파교인들은 너무 빨리 종교개혁이 피운 꽃봉우리와 꽃들(바른 교리를 의미)을 꺾어 담아 모으는데만 만족해버렸다. 이 꽃들이 어느 순간 열매로 맺혀져야함을 생각치 못한채…곧 , 이제 정화된 순수한 교리가 성도들을 참신앙에 입각해서 바른 삶의 모습으로 인도함을 망각해 버렸다…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 나가고, 성경을 읽고, 새로 이루어진 신앙고백들과 교회법을 인정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버렸다" (Taffin, Udemanns).

'나데레 레포르마티'의 의지

'나데레 레포르마티'는 이런 앞선 오해를 지적하고 폭로하였다. 그들의 외침은 '제 2의 종교개혁의 표어를 통하여 전달되어졌다. '신앙과 더불어 삶을' 이룩하자는 것이었다. 성도들이 여기에서 그들의 능력과 기쁨을 발견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모든 삶이 달라져야 함을 강조했다. 주일, 죽음에 이르러서 뿐만 아니었다. 살아있는 신앙, 신앙의 생동성이 역설되었다. 이는 분명 열광적, 신비주의적, 주관주의적, 탈세적 입장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성도의 현재적 삶에 책임감과 기쁨을 보다 크게 부여코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루터와는 다르게, 구약에 큰의미를 부여한 칼빈의 강조와 일치됨을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나데레 레포르마티'를 요약해 본다. 17세기 네델란드에서 일어난 경건성을 위한 갱신운동으로서,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이 '교리개혁'일 때, '삶의 개혁'으로 종교개혁이 보충되고, 완성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역사적 고찰

오늘에 이르기까지, 네델란드 고유의 나데레 레포르마티는 그 출발점을 찾기에 불명확하다. 영국의 청교도주의에서 찾기도 한다. 또는 자신의 나라에서 찾기도 한다.

1610년부터 네델란드에서 활동한 Wilhelm Amesius(1576-1633)에게서 그 출발점을 찾기도 한다. 그는 영국인으로서 영국의 청교도주의를 네델란드에 심는데 큰 공헌을 한 인물이다. 케임브리지대학의 교수 윌리엄 퍼킨스의 수제자로서, '계약신학'의 머리인 코케이우스의 스승이었다.

또는 미델부르그지방의 목회자였던 Willem Tellinck(1579-1629)에게서 그 시점을 찾는다. Tellinck목사는 철저한 청교도주의의 영향하에 신학을 영국에서 한 후, 청교도주의를 이상으로 하여 자신의 모국 네델란드교회에 엄격한 주일성수, 각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경건적 성도의 삶의 구체적 실현 그리고 체계적 신앙교육, 성경교육 등을 위한 '경건의 모임' 등으로 '경건의 연습'을 호소하였다. 자신의 목회지 미델부르그는 어느덧 "경건의 모델정원"이 되었다.

또 다른 면에서는 Oranien지방의 왕자 Wilhelm의 정치자문으로서 궁중설교자를 지낸 Jean Taffin(1530-1602)을 나데레 레포르마티의 창시자로, 보다 빠른 출발점을 찾기도 한다(Van der Linde). 그의 강조 역시 "경건의 연습"이었다.

아무튼 네델란드 개혁파 교회의 경건운동 나데레 레포르마티는 그 시작에 있어서까지도 연구과제로 남게 된다. 물론 언어적 장애—네델란드어—와 그 운동이 네델란드 개혁파교회 안에서까지도 큰 호응을 얻지 못한채, 소수운동으로 머물렀다는 이유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네델란드 교회의 위기: (1650-1720)

네델란드 개혁파 교회에 불어닥친 당시의 위기는 결정적으로 나데레 레포르마티를 약세화시켰다.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 상층 계층에 팽배해 있던 르네상스와 인문주의의 생동력은 무시할 수 없었다. 여기에 호소되어진 나데레 레포르마티의 메세지는 강한 반발을 살 수밖에 없었다.

둘째, 중세의 쾌락추구적 삶이 지배적이었다. 술과 춤, 향연 그에 따른 주일의 세속화 등이 강한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교회는 더이상 권위를 상실했고, 나데레 레포르마티의 성화(Heiligung)는 호소력이 없었다.

셋째, 카르테시우스, 스피노자 그리고 데카르트의 계몽주의는 유럽적 양심의 위기를 가져왔다.

넷째, 양대 지성이었던 우트레히트 대학의 보에티우스 교수와 라이덴 대학의 코케이우스 교수의 신학논쟁, 특히 '안식일 논쟁'(Sabbatstreit)은 '나데레 레포르마티'의 프로그램에 도전적이었다.

다섯째, 끝으로 라바디의 분열주의는 나데레 레포르마티의 본질적 추구였고, 이상이었던 네델란드 '민족교회'(Volks-kirche)의 거듭남으로 인한 개혁과 모든 국민적 삶의 성화을 결정적으로 포기케 하였다. 라바디는 네델란드의 민족교회는 더 이상 회생불가능한 "썩어빠진 위선자의 교회"로 보면서, 오직 그 교회에서의 분열만이 해결책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오류였다.

이러한 네델란드교회의 위기는 '나데레 레포르마티'의 외침을 간과케 하였다.

라바디의 분열주의

'경건주의' 연구에 있어서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은 라바디이다. 그는 불란서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활동은 실로 전 유럽적이었다. 초기 경건주의 연구는 그를 경건주의의 창시자로 보기도 했다. 특히 개혁파 경건주의에 있어서 그러했다. 그러나 오늘의 연구는 그를 '분열주의적 경건주의 효시'로 부른다. 또는 '이단종파 교주'라고 부르기도 한다. 심지어 개혁파 경건주의가 '라바디주의'(Labadismus)라고 일컬어지기도 했다. 또한 개혁파 경건주의자 창시자 운데아익 목사가 '라바디주의자'(Labadist)로 잘못 불리워진 적도 있

경건주의에 있어서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은 라바디이다. 그는 불란서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활동은 실로 전 유럽적이었다. 초기 경건주의 연구는 그를 경건주의의 창시자로 보기도 했다.

었다(M.Goebel). 이러한 잘못은 한동안 '개혁파 경건주의'에 대한 첫 인상을 흐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더딘 연구를 가져오기도 했다. 다행히 이러한 오해는 더 이상 학계에서는 벌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J.Wallmann의 가장 최근의 저서 '경건주의'(Der Pietismus, Göttingen 1990)가 이를 명료하게 해답해 주고 있다.

라바디는 원래는 카톨릭의 예수회 교단의 신부였다. 그러나 그가 1650년, 40세 되던 해 칼빈의 저작 '기독교강요'에 영향을 입고, 개혁파교회로 개종을 하게 되었다. 그는 제네바에서 개혁파교회의 담임목사가 되고, 여기에서 제 2의 칼빈이라는 칭호를 얻기까지 이른다. 그의 명성은 드디어 개혁파 교회의 네델란드에까지 이르게 된다. 우트레히트 대학 교수였던 보에티우스와 로덴슈타인의 추천으로, 네델란드교회의 경건운동, 그리고 개혁운동의 본거지인 젤란드 지방의 미델부르그로 청빙을 받게 된다(1666년). 사실 라바디는 제네바 교회의 청빙을 받기 전 벌써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의 개혁파교회로부터 간곡한 청빙을 받은 바가 있었다(1659). 라바디는 이제 스스로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 살아있는 경건성의 선포자요, 윤리적 삶의 개혁자요, 회개를 외치는 설교자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령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요구되어지는 특별한 사명자로.

그러나 미델부르그에서의 목회 2년만에, 라바디의 초대교회를 이상으로 하는 교회개혁과 포르트로얄의 카톨릭적 신비주의에 영향을 입은 그의 명상주의적 경건성이 네델란드교회와 마찰을 가져오게 하였다. 라바디는 교회의 근본적인 부패가 일반 성도들에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들의 타락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기에 그는 성직자들의 영적 갱신이 교회개혁의 구축이 됨을 역설하였다. 그는 신학생들의 교육이 학문 위주로 대학교에서 행해질 것이 아니라, 수도원적 분위기 속의 신학교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일반 성도

들의 영적 갱신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4장을 모델로 하는 사도적 교회모임의 재도입을 제안하였다. 이 모임에서는 자신의 글 'L' Exercice Prophétique'(1668)가 교리학습서로 추천 되어졌고, 또한 평신도들의 성경해석이 허락되고, 권해졌다.

급기야 라바디의 제안인 '사도적 교회모임들'은 네델란드 민족교회와 분열을 낳게 하였다(1669). 그는 그 모임에서 하나의 기준을 설정했는데, 이는 '사도적' '복음적'이었다. 이 기준과 더불어 다시금 초대교회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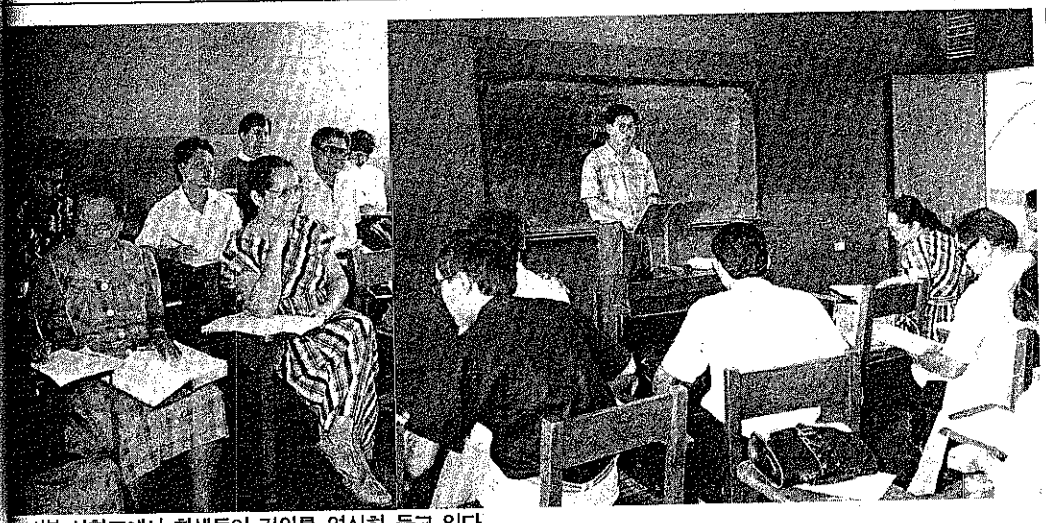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개혁하고자 초대교회를 모델로 합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일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결정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보게 됩니다. 매일 오전과 오후에 두번씩 모입니다. 주일에는 세 번 집회를 갖습니다. 이 집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높은 설교단에서 아래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식의 설교는 아니합니다. 모든 성도가 똑같은 위치에서 같은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이미 선택되고, 봉독된 성경본문에 대해서,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할려고 하는 자, 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자신의 생각을 발표합니다. 본인의 책 '예언의 연습'에서 이미 언급된대로 말입니다…여기에서의 모든 기준은 사도적,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초대교회의 살아있는 모습을 다시금 구체화해 보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실생활 가운데서 그리고 교리의 순수성 가운데서 말입니다".

이러한 라바디의 집회소문은 전 네델란드교회를 자극하였다. 전국교회에서 이 라바디의 집회로 성도들이 몰려들었다. 라바디는 자신의 집에서, 자기를 추종하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신학교를 시작하였다. 몇몇 젊은이들은 거기에서 수도원적 생활을 하면서, 라바디의 교육을 받았다. 여기에서 신앙의 내적인 삶, 기도 그리고 명상 등이 강조되었다. 그의 저서 '진정한 경건을 위한 소학습서'(1668)가 잘 말해준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비주의적 동경이 강하게 그림처럼 표현되어 있다. 고신

문학회 새해 첫모임

어린양문학회 새해 첫달 첫모임을 1991년 1월10일(목) 오후 7시 심일교회 교육실에서 가집니다. 지난해까지 작품발표하지 않은 동인은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동인들 가운데서도 원하시는 분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양문학회



시부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다.

필리핀에 더 많은 선교사를

서창수 /본지 편집인

김 형규 선교사 편

상하(常夏)의 나라 필리핀에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은 1987년이었다. 남후수 선교사가 9월에, 김형규 선교사가 12월에 필리핀에 도착했다. 마닐라에는 이미 선교단체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우리 선교사들은 중부인 시부(Cebu)에 자리를 잡았다.

김형규 선교사는 90년 7월까지 시부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마닐라에 있는 장로교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시부에도 분교를 세워 강의에 주력했다. 그러면서 교회도 세워 현지인들에게 맡겨 사역하게 했다.

시부의 사역은 남후수 선교사에게 맡기고 90년 7월에 민다나오 섬의 가까얀 데오론(Cagayan Deoro)에서 한국선교사로는 제1호로 사역을 시작했다. 처음 한인교회를 시작하여 후배 목사에게 맡기고, 김목사는 현지인 교회를 개척하였다. 현재 20~25명이 참석하고 있으며 성경공부도 주 2회 실시하는데 일반인과 사역자를 위한 공부를 나누어서 시키고 있다.

민다나오는 한국 전체 크기의 섬이고 까까얀데오로가 민다나오의 관문이므로 자연히 교통과 교육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데오로는 금(Gold)이란 말인데 필리핀의 곡창지대이기에 붙여진

특별기고

개혁파 경건주의의 근원 III

주 도 홍

독일 도르트문트한인 제일교회 목사 보쿰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개혁파 경건주의를 전공하고 있으며 뭉대학에서 신학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개혁파 경건주의 근원

라바디의 모든 저술들은, 당시 일반화되어있던, 교회를 통한 신학적 추천 형식의 검열이 무시된 채 발간되었다. 라바디가 먼저 네델란드교회에 불신 요소를 준 것은, 당시 교회의 신앙고백(벨기에 신앙고백)과 교회법을, 임직시에 서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 채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마찰 가운데 라바디의 집회, 저술 그리고 기성교회의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부패한 교회로서의 단언은 네델란드 민족교회에 있어서 치명적이었다. 또한 그의 임박한 천년 왕국적 말세관과 탈세적, 탈교회적 공동생활은 점점 네델란드의 민족교회에서 멀어져가고 있었다.

1669년 4월 13일 주일에 미델부르그 교회는 라바디와 그의 추종자들을 정죄하고, 출교을 명하였다. 라바디는 팜플렛을 작성하여, 자신의 신앙의 정통성과 개혁행위 등의 목적들을 모든 교회에 알렸다. 그후, 자신의 추종자들과 뜨거운 성찬예식을 치루고, 이제 자신들만의 길을 가야 했다. 이때부터 라바디의 방랑은 시작되었다. 먼저는 근접한 Veere지방으로, 그리고 Amsterdam으로 옮겨가야만 했다.

라바디는 교회 출교후 더 큰 확신과 사명감에 자신이 불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외침은 기성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부패한 바벨인 기성교회로부터 벗어나서, 암스텔담에 있는 자신의 신앙촌에 합류할 것을 주장했고, 이것이 어려울 경우 기성교회에서 탈퇴하여 따로 예배와 집회를 가질 것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라바디의 종용은 기성교회 성도들을 흔들리게 하였다. 네델란드 민족교회는 혼란의 위기에 있었다. 1670년 가을, 급기야 네델란드 교회는 이 무리들을 나라 영토 밖으로 추방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채 1년도 못되어, 이젠 암스텔담을 떠나야만 했다.

이미 1669년부터 라바디의 수제자요, 후에는 라바디의 계승자가 된 독일인 Pierre Yvon(1646-1707)은 독일 진출을 위해 Mülheim과 퓔른지방 등을 중심으로 사전 답사를 끝내고 있었다. 아울러 라바디의 꼭 필요한 저서들을 이미 독일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이러한 준비과정과 더불어 라바디는 당시 개혁파교회에 속해 있던 유명한 여인 Anna Maria van Schurman (1607-1678)을 자신의 사람으로 얻게 된다. 그녀는 당시 학적 명성 그리고 유창한 언어실력 등으로 유럽에 알려져 있었다. 그녀의 도움으로 팔츠 주의 성주, Elisabeth는 라바디의 망명을 허용하게 되었다. 라바디는 이제 독일의 헤어포트로 옮겨올 수 있었다(1670년10월).

헤어포트에서의 라바디의 신앙촌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지금까지 금욕적인 삶을 주장하면서 독신이었던 라바디는 추종자 중 한 여인과 결혼하게 된다. 그의 수제자 Yvon도 독신을 깨고, 그 여인의 여동생과 결혼을 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추종자들은 서로서로가 짝을 지어 결혼예식을 하게 되었다. 곧 새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보존과 확장에 있다고 말했다. 이 결혼은 하나님에 의해 행해져야 하고, 단지 중생한 자들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천국의 삶'은 특히 그들의 행하는 성찬예식에서 극에 달했다. 그 성찬 예식과 함께 그들은 '천국의 향연'을 만끽했다. 춤을 추고, 서로를 포옹하고, 또한 입맞추기를 기꺼이 하였다. 환성과 껑충거림을 절제하지 않았다. 사랑의 만찬이 이루어졌다. 그들의 자녀들은 이제 죄없이 태어난다고 믿었다. 그들의 모임은 그 자체가 그들에게 '하나님나라'였다.

물론 라바디의 이러한 광신적 신앙촌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독일교회로부터 의구의 눈초리를 무시할 수 없었다. 라바디는 자신들의 신앙이 개혁파 교회의 신앙과 일치되다고 선전하였다. 그러나 1671년 10월 31일 국제재판소는 라바디와 그 신앙촌의 지도자들의 추방을 결정하였다. 다시금 라바디의 신앙촌은 순례자의 길을 떠나야만 했다. 다행히 라바디는 1672년 당시 덴마크에 속한 Altona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가 있었다. 여기에서도 라바디는 다시 한번 민족교회에서의 탈퇴를 성도들에게 호소하였다. 1673년 여름 라바디는 계속되는 병으로 죽음을 맞게 되었다(64세). 라바디의 역할을 독일인 Yvon이 맡게 되었다. Yvon의 신앙촌은 그가 1707년 세상을 떠나기까지 유지되다가 그가 죽은 몇

이러한 청교도의 경건서적의 물결속에서 성장한 두 인물, 테오도르 운데아익과 필립야콥 슈페너가 각기 개혁파교회와 루터파교회의 경건주의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것은 경건주의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쉽게 알려주는 한 예가 된다.

년 후에 사라져갔다.

결론 : '교회 속의 작은 교회'

경건주의의 2대 표징 중의 하나는 성도들의 경건의 모임인 '교회 속의 작은 교회'이다. 이는 탈교회적이 아닌, 교회의 권위를 인정한 교회 속에 존재하는 모임들이었다. 이 교회 속의 모임들이 교회의 영적 갱신과 개혁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라바디의 모임은 교회없는, 교회 밖에 이루어진 모임, 곧 'Ecclesiola'뿐이었다. 이 '작은 교회'만을 염두에 둔 라바디의 결정적 오류는 '분열주의'였다. 자신의 분열을 '거룩한, 필요불가결한 분열'까지 주장했다. 그러면 그가 이룬 분열은 교회역사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는 그 어떠한 상태이든지 회생불가능할 수는 없다. 그 교회의 개혁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 사실, 라바디의 교회개혁의지는 루터파 경건주의의 슈페너에게서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졌고,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라바디의 교훈', 그것은 교회 밖의 교회개혁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었다. 그러기에 경건주의 표식 '교회 속의 작은 교회'가 강조되어졌던 것이다.

—영국 청교주의의 경건서적—

a) 1670년부터 독일 개혁파 교회성도들은 William Perkins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청교도의 경건서적들을 읽기 시작하였다. 이와 거의 때를 같이 하여 나온, 루터교회 성도들이 성경 다음으로 즐겨 읽던 책은 요한 아른트의 "진정한 기독교"(1605/10)이었다. 이 아른트의 "진정한 기독교" 역시 이단성의 시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혁파 교회는 영국의 청교도 경건서적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는 대부분이 칼빈주의 신학에 입각한 글들이었기 때문이다. 칼빈주의 신학의 개혁파교회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루터파 교회는 한동안 성도들이 이러한 경건서적을 읽는 것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31년부터 Leuis Bayly (1565-1631)의 독일어 번역본 "Praxis pietatis"가 루터파 성도들에게서 읽히기 시작하였다. 30년 종교전쟁으로 인한 영혼의 피폐함을 루터파 정통주의가 해소할 길이 없었다. 이는 성도의 삶을 구체적이고 실감나게 나열한 감동깊은 청교도의 경건서적이 매우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1660년 루터교에서도 청교도 경건서적의 첫번째 독일어 번역본을 내기에 이르렀다.

당시 모든 서점들은 이러한 경건서적으로 가득차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17세기에 있어서 독일에만 아니라 전 유럽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청교도의 경건서적의 물결속에서 성장한 두 인물, 테오도르 운데아익과 필립야콥 슈페너가 각기 개혁파교회와 루터파 교회의 경건주의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것은 경건주의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쉽게 알려주는 한 예가 된다. 특히 슈페너의 경건주의에 있어서 결정적인 2대 사상인 "교회속 작은 교회"와 "더 나은 시대를 향한 소망"을 이 청교도의 경건서적 속에서 그 근원을 찾기도 하였다.

급기야 August Lang은 자신의 저서 "Puritanismus und Pietismus"속에서 영국의 윌리암 퍼킨스를 '경건주의의 아버지'로까지 부르게 되었다. 이는 그 무엇보다도 독일의 경건주의가 영국의 청교도주의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속에서 형성되었는가를 보여준다.

b) W. Perkins (1558-1602)의 신학사상

Perkins는 영국에서 당시 신학에 있어서 탁월한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의 업적의 특이성은 학문적이면서 그리고 경건적인 신학의 경계선 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이렇게 신학을 정의하였다 : "신학은 영원히 축복된 삶에 대한 학문"이다.

Perkins에 있어서 기독교인이란 "모든 죄악으로부터 해방된 한 사람이 아니라, 선천적 인간의 죄성을 인간의 비극으로 간주하며,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에서 남자답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죄에 대적하여 싸우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결정적인 예문론자"라고 말하였다.

퍼킨스의 신학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첫째 종교적 개인주의 • 퍼킨스의 개인주의는 긴밀하게 예정론에 근거를 둔다. 그러한 예정론에 대한 이해는 각 성도의 신앙적 삶을 깊게 할 뿐 아니라, 보호하고 있다.

둘째 선택에 의한 확신. 이 확신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인한 증거로 얻어진다. "나는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확신으로부터 더 이상 실망하지 않는 일이다.

셋째 회심에 대한 종교적 체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영적 신뢰로서 느낌의 고지가 문제시된다. 이러한 열정으로부터 선교와 전도가 활발해졌다. 이러한 퍼킨스에게서 경건주의 선교의 초석이 놓여진다.

넷째 참 교회의 실체. 퍼킨스에 있어서 참 교회란, "세상과 육을 대적하는 전쟁의 기치"로서, 복음이 구체화되는 현장이다. 그리하여 교회는 교인

참 성도에게 요구되는 2대 근본적인 조건인 깨끗한 마음과 언어의 세련성이 '가나안의 언어'와 더불어 강조되었다.

들중 경건한 성도들 만을 일컫는다.

이러한 사상과 더불어 그의 중요한 저작들이 이루어졌다 : '겨자씨', '혀의 제어', '우리의 생에 있어서 기독교인의 풍성함에 대하여'등등. '겨자씨'에서는 죄인의 회심이 첫번째 단계로서 다루어지고 있고, '혀의 제어'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중요한 덕목'이었다. 참 성도에게 요구되는 2대 근본적인 조건인 깨끗한 마음과 언어의 세련성이 '가나안의 언어'와 더불어 강조되었다. 그가 말한 '가나안의 언어'란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과 신뢰성있는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퍼킨스의 저술들은 당시 유럽 전역에서 가장 풍성한 결실을 보았다. A. Lang은 퍼킨스의 역사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경건주의는 퍼킨스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경건주의가 역사적 실체로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그와 더불어였다. 그 이후부터 경건주의는 사라지지 않고 점점 개신교의 모든 영역으로 퍼져 나갔다".

퍼킨스는 당시 개혁파 교회 안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영향력있는 저술가였다.

c) 영국 청교도의 경건서적이 다루었던 일반적 대주제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회개, 성화, 자기주장. 이러한 주제들은 무엇보다도 칼빈주의의 칭의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① 회개.

설교란 설교되어진 말씀으로서 회심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방편이었다. 영국 청교도주의는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설교운동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설교가 경건서적의 많은 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② 성화

여기에는 자기거부와 세상의 부정이 성도의 일상적인 삶을 위해서 강조되어진다.

③ 자기주장

청교도의 경건서적은 기독교인의 자기점검을 향한 표징들에 대한 도식을 개발하였다. 신앙에 의한 하나님의 선택의 표징이 이제는 중생의 표징으로 바뀌어졌다.

성도의 실질적인 삶에 중점을 둔 이러한 청교도주의의 경건성은 이후에 대두되는 경건주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고신

목양칼럼

좋은 교회 1

대흥교회의 두 동의 사택이 눈시울 뜨겁게 하는 사연

관 형 / 이리신활교회

성경 속에 몇몇 좋은 교회들이 나타난다. 안디옥교회, 빌립보교회, 데살로니가교회 등이다. 참으로 좋은 교회들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위에도 훌륭한 교회들이 있어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전주시 근처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에 위치한 '대흥교회'(통합측)가 그곳이다. 그 교회는 농촌교회답지 않게 200평의 예배당 본당건물과 교육관, 그리고 사택 두 동이 있다. 또 300명의 교인이 모이지만 필자는 결코 큰 건물과 많은 교인 숫자를 소개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농촌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따로 지어져 있는 두 동의 사택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상세한 이야기는 혹시 그 교회를 탐방하여 소개해 줄지도 모르는 기자의 기사를 기대하며 필자는 간략히 말하고자 한다.

물론 한 동의 사택은 현직 담임교역자의 거처임에 틀림없다. 또 다른 한 동의 사택에 숨길 수 없는 미담이 들어있는 것이다. 옛일이 되었지만 김운영 목사라는 분이 대흥교회에서 시무중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유가족인 사모와 자녀들은 그 교회를 떠나야 했다. 그러나 대흥교회는 유가족들로 하여금 그 살던 사택에서 그대로 살도록 하고 새로 부임하는 교역자를 위해서 다른 사택을 마련했다는 이야기다.

유가족들에게 다른 거처를 마련해 주려고 생각해봤으나 혹시 살던 사택에서 나가게 하는 것이 상처가 될까봐서 그와같이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미망인을 대흥교회의 여전도사로 일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을 때 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었다.

필자가 목사라서가 아니다. 다만 그처럼 좋은 교회가 한국강산에 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아, 대흥교회여! 이름 그대로 크게 부흥하기를 바라노라.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살전 1 : 3).

고신